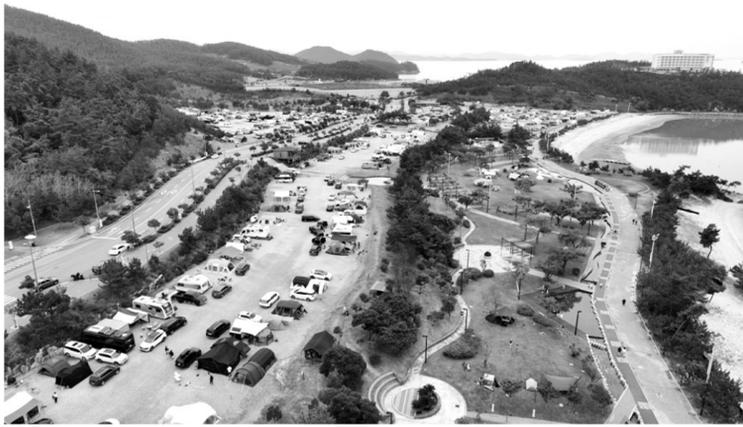


해남 오시아노서 국내 최대 캠핑관광박람회 열린다

다음 달 3~6일 나흘간
캠핑객 800여팀 4000여명
120여개 캠핑레저업체 참여



캠핑박람회가 열리는 오시아노관광단지 전경.

해남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관광박람회가 열린다. 해남군은 다음 달 3~6일까지 나흘간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2024 해남캠핑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 맞는 캠핑관광박람회는 120여개 캠핑레저업체가 참여해 각종 캠핑용품과 캠핑카, 카리반 등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업별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기존 오시아노 캠핑장 외에도 임시 캠핑장을 추가로 조성해 캠핑동호회와 기업, 개인 등 800여팀, 4000여명의 캠핑객들이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초가을을 캠핑의 낭만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캠핑, 해남에 있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오시아노 관광단

지 잔디광장에서 지프, 자갈, 코베아, 캠프벨리 쉼보레, 벤츠 등 기업들의 전시회가 진행된다. 또 환경을 생각하는 캠핑을 테마로 태양열 부시크래프트, 폐현수막 캠핑의자 만들기, 업사이클

링 문패·바다유리 악세사리 만들기, 제로 웨이스트존, 탄소중립라운지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은 5일 오후 6시 주무대에서 열리며, 곧

바로 오시아노 뮤직페스타 공연이 이어진다. 비오, 조광일, 나윤권, 송하예 등이 출연하는 음악공연과 함께 불꽃놀이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들어선 해남126호텔 연회장에서 캠핑기업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캠핑산업 포럼도 개최된다. 군은 모든 먹거리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빈손 캠핑 캠페인을 통해 캠핑객이 신선한 해남 농수산물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캠핑꾸러미 사전예약 판매로 지역사회 소비율을 높였다. 또 성공적이고 안전한 박람회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야외 행사에 대비해 진드기 해충 방제와 풀베기, 가로수 정비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3년차를 맞은 캠핑 박람회를 올해 더욱 알차게 준비해 국제적인 행사로까지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지속가능한 캠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해남 오시아노에서 올 가을 캠핑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정 기자 dia@kwangju.co.kr

완도 금일읍사무소 신축 청사 내년 5월 준공



신축 금일읍사무소 조감도.

완도군이 금일읍사무소 청사를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이다. 1983년 건립된 금일읍사무소 건물은 노후화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주차 공간이 협소해 새로운 청사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청사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군은 청사 신축 기본 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밟아 총 53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1136㎡ 규모로 짓고 있다. 공공청사의 변화 추세에 맞춰 주민 커뮤니티 중심의 미래 지향적으로 신축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올해 4월 첫 삽을 뜬 이후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금일읍사무소는 지난해 9월부터 금일읍 다목적 복지회관 1층으로 이전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단순히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민의 문화·복지적 기능까지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 27~29일 달빛 야행 행사

영암군은 2024년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달빛을 품고, 영암을 누비다'를 오는 27~29일 군서면 상대포 역사공원과 구림마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달빛생태도시 영암'이 가진 천혜의 관광문화자원 중 하나인 상대포 역사공원의 새로운 모습을 선사할 예정이다. 야밤 공연과 체험으로 채워질 이번 행사는 ▲상대포 & 구림마을 야간관광 및 달빛 풍류 콘서트 ▲달빛 야행 ▲달빛 뮤지컬 갈라쇼 ▲달빛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행사에는 맑고 독특한 음식의 박경하·박강수, 뮤지컬배우 차지연, 파워풀한 가창력의 박혜원(HYNN) 등이 참여해 월출산 가을밤 달빛 아래에서 관객과 교감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영중 영암군 관광스포츠과장은 "상대포와 구림마을 일대에서 달빛 아래에서 즐기는 네 가지 색(四色) 공연으로 '우리'를 사색(思索)해 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관광객이 영암에 머무르는 야간 콘텐츠로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그라피티 섬' 조성사업 세계적 작가 '빌스' 참여

'염전과 노동자의 얼굴' 작품 완성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라피티 섬' 조성사업에 세계적인 작가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포르투갈 출신의 작가 빌스가 압해농협 본관 후면에 초대형(8m×10m) 작품을 최근 완성했다. 빌스(Vhils)는 포르투갈이 겪었던 혁명의 아픔과 그에 따른 도시 벽면들의 변화에 인상을 받았고, 벽면을 파내는 테크닉으로 주로 자화상을 그려냈다. 얼굴을 통해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나 도시에 특정한 주제를 탐구해 그 지역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한 이번 작업에서도 신안군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고심해 '염전과 노동자의 얼굴'을 주제로 익명의 여성 노동자의 노고를 섬세한 얼굴로 표현했다. 압해도를 대표하는 '애기동백' 꽃을 표현하는 등 신안과 압해도의 정체성이 빌스만의 독특한 작업 세계관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번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이들이 대중적으로 접근하고 예술과 연결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작품은 700번째이며 특별하고 의미 있어 작품 하단 좌우로 사인을 두 개를 남겼다"고 소감을 남겼다. 신안군의 '위대한 낙서마을(GRAFFITI TOWN)'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압해읍 소재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작업에 앞서 지난 7월 압해읍사무소에 스페인 출신 델크의 초대형(30m×6m) 작품을 시작으로, 미국의 존원(JonOne)도 신안군에서 신혼부부에게서 1만 원에 빌려주는 아파트인 '펠리스파크' 두개 벽면에



그라피티 작품 앞에서 박우량(오른쪽) 신안군수와 작가 빌스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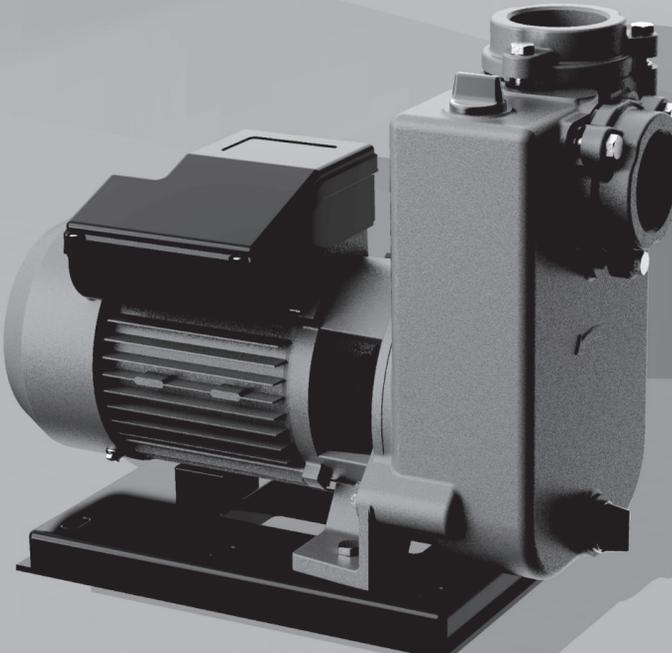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대형 작품(각 10m×10m)을 완성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라피티 타운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안군의 역사

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담은 아름다운 그라피티 작품들이 완성돼 신안군을 방문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스포츠 대회 앞두고 숙박업체 협력 강화 간담회

무안군이 각종 전국(도) 규모 스포츠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무안군 숙박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협력을 강화한다. 무안군에는 전라남도지사배 소프트 테니스 대회와 국기원 승품단 심사대회 등 도내 대회 4개와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열려 총 65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최근 지역 숙박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숙박업소 사전 예약 협조와 바가지요금 차단, 친절 서비스 제공 등을 요청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강미간 무안군 스포츠산업과장은 "오는 연말까지 많은 선수단들이 무안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회 기간 선수단 등 관계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방문하고 싶은 무안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